

buddhanews.com

자기 내공에 모든 것을 일임시켜 놔 버려야

25면에서 계속

진하세요.

집안이 거덜나게 돼

저의 아버지께서 믿었던 친구 분께 보증을 잘못 서 줬다가 그 분과는 척을 지게 되고 저의 집안은 거덜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처음으로 가까운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면서 정성껏 빌었는데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현대불교신문을 보게 됐고 답답한 마음에 스님께 도움 말씀 청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일이 부딪혔다 하면 그걸 누가 부딪치게 한 겁니까? 다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부딪치게 한 거지 판 놈이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듯이,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상대성 원리로서 내가 구멍이에 빠질 수도 있고 부딪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각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그것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급한 일이 생겼다 이럴 때는 그 마음의 주인한테 모든 것을 일임해 버리고 놔 버리세요. 그럼 거기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는 내 마음의 주인이 다 해결을 하고 보이는 데서도 마음의 주인이 움직여주게 한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일체들 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마음을 잘못 먹어 가지고 구멍이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문제지, 절에 가고 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예요. 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 다 이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부족하면 남한테 잘한다 하면서도 벌써 남한테 좋지 않게 하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하는 일을 모르죠.

그래서 하나하나 일거일동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주인이 하는 것이니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항상 그 마음을 변치 말고, 자기 믿는 마음을 변치 말고 타의에서 구하지 마세요. 어느 누가 있어도 타의에서 구하게 되면 마가 생겨서 달려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 집안이 산란해지고 우환이 생기고 그러는 걸 누구한테도 항거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산란하면 살림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차분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의 주인한테 딱 일임시키고 중심을 잡고 있으면 항상 이렇게 걸어가고 무겁게 걸어가고 되고 바람이 불어도 끄덕도 안 하고 그냥 무겁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삼 톤 무게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친다 해도, 삼 톤이라면 얼만 줄 아세요? 삼 톤 톤이라도 해도 되죠. 삼 톤 톤이 무겁게 걸어가는 데 이 바람에 흔들렸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가볍게 그냥 사랑으로서 '아이구! 이러면 좋단다. 저러면 좋단다.' 내가 이러면 이것은 중심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 톤 톤이라는 게 무겁지 않고 그냥 가볍게 되니까 결국은 땅에 이렇게 발을 딱 디디면 삼 톤 톤이라는 게 무겁게 디디어야 비바람이 불고 뇌성벽력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무겁게, 가볍지 않게' 그래야 생활도 무겁게, 가볍게 돌아가고 내 몸도 가볍게, 무겁게 광채가 바깥으로 나며 향기가 나오고 여러 사람에게 이익 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생을 자기가 이익 하게 하니 어찌 남한테 이익이 안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중생이라는 것은 항상 남을 접하고 상대를 두고 살아나는데 어찌 해가 남한테 가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향기요, 그것이 빛이요, 그것이 능력이요, 그것이

이 따라 주길 바라게 됐나 봅니다. 자식에 대한 이런 애착을 두면 안 되죠?

애착을 두지 말라는 거는, 부모한테도 그렇게 애착을 두지 말고 효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자식이나 부모나 또는 남이나 똑같이 항상 남을 이익 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겸손할 줄 알고, 마음으로 고개 숙일 줄 알고, 이렇게 살면 누구한테든 인과응보라는 그런 소리조차 없을 것이고 또는 자식과 부모기간에 다시 만난다 할 지라도 금끼리 만나고 이렇게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고, 이렇게 받아야 하고, 이렇게 아파야 하나 이러지만 그것이 애당초부터 자식이 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인연에 따라서, 인과응보에 따라서 만났기 때문에 그 고통을 면치 못하고 애타

고, 아주 애착을 때 버리고 죽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하고 떠났거든요.

떠날 때에 어머니가 좋은 옷을 두 벌을 가져왔는데, 바지가 이게 다 떨어지고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다 그 옷을 걸치면 될 것입니까. 아니, 말도 못하게 찢어지고 피가 나고 딱지가 앉고 사람 같지도 않은 데다가 그 옷을 입으면 될 것이지요? 그래서 가다가 그 좋은 옷은 또한 사람 주고 이라고는 한 산모퉁이로 돌아섰을 때 가랑이 자욱자욱 밟히더라고요. 그 소리가 요란하게 나면서 나를 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멧없는 인간의 이 모습의 그림자를 보시고 저렇게 쓰러지셨으니 눈물이 너무나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보이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보이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 마

다.

그러니 인과응보로서, 유전성으로서 그건 그대로, 과보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딱지 말라 이거예요. 애타 쓰고 괴롭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도 괴로울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뭐가 그렇게 괴로울 게 있습니까? 다 우리가 해 놓고서, 자기 자신들이 해 놓고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이제부터라도 알고 착을 딱, 끊어서 놔 버려야 이겁니다. 내 마음의 주체가 있듯이, 그 인연된 사람들의 마음의 주체도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못되게 하진 않아요, 절대로요. 그러니까 놔 버려야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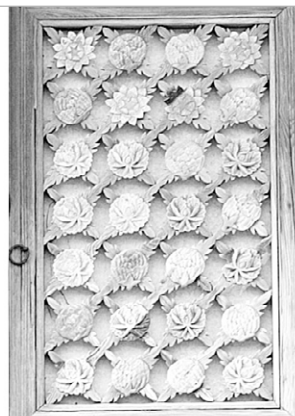
누구든지 발등에 불이 떨어져 보세요. 어미 아비 생각 하고 자식 생각 할 사이가 없이 그냥 뛰죠. 자기 살 구멍은 다 찾습니다. 그런데 왜 애타 써야 합니까? 애타 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만남이 이 절단을 이렇게 한데 붙어났다가 헤어질 때 되면 흠을 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애타 쓰니까, 언제 적의 부모 자식이며 언제 적의 부부였고, 언제 적의 한 식구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부모가 "넌 이리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랬다 한다면 자식은 "난 이리로 가는 게 좋겠소." 그럴 때에 이 부모가 생각할 때 '아이,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그럴 때에 자식은 부득이 이리로 가겠어요. 예를 들어 얘기예요. 그러면 "아! 네가 그리로 가는 것이 옳다. 그리로 간다 할 지라도 부처와 중생은 틀이 아니니까 항상 가는 대로 길을 네가 찾아가면 되니까." 하고 하나도 애타 쓸 필요가 없어요. 떨어졌다 붙었다 이래도 애타 쓸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는 자기가 찾아 자기가 가게 돼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뒷받침을 그렇게 해 주고 원하는 자에게 마다 안 하고 중생들에게 해 주셨죠. 지금까지도 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이상 부처님은 항상 살아 계시니까요. 아주 꼭 차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시한부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학교 학생들이 공기 가지고 놀지 않았습니까. 또 자치기도 하고 손으로 이렇게 폼아서들 하고 놀았어요. 잠시 잠깐 그렇게 와서 놀다가 좀 땀 뻘뻘 치면 그냥 속속 지워 버리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소꿉장난하다가도 그냥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듯이, 그냥 "아 무개야!" 부르면서 "예!" 그러고선 다 지워 버리고 들어가듯이,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착을 둘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내린 저러 이겁니다. 그렇게 바로 움직일 안 하는 그 마음이 피어만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하다 이 소립니다. 잠시잠깐 쉼표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 가면 그 뿐이라는 것을 안다면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집착하지 않고 그런 마음들도 자기 마음 중심에 항상 놓아 가면 살아야 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처님이 밝게 계시고
여러분 마음도 밝으니
그렇게 마음으로 지어서
자기가 고통을 받지 마시고
한철 즐겁게 사세요



보살행이다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이치예요. 그러나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과 더불어 같이, 이 종교라는 자체가 이름일 뿐이지, 우리는 한 배를 타고 한 지붕 밑에서 마음을 묶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래 뒤를 것은 없으나 자기 마음들이 자기 마음을 중심을 완전히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니깐 마음을, 그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쁜 일은 행하지 말고 좋은 생각을 잘해야 이겁니다. 생각을 잘못한다면 내 육신도 고달프게 되고 가정도 고달프게 됩니다. 그러니깐 마음을, 그 중심을 딱 쥐고서, 한번 한 생각을 낼 때 이 삼세 우주간 법계가 뿔뿔씩 해야만 되지, 그렇게 가볍게 살면 가정도 가벼워지고 하는 일마다 가벼워집니다. 그러니 바람에 쓰러지게 돼 있죠. 구멍이에 빠지게 돼 있고요. 그걸 누구한테 항거를 하겠습니까.

자식에 대한 애착이 커서

안녕하세요? 예전에 제가 자식을 갖기 전에는 자기 자식을 너무 과잉보호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왜 그럴까 싶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가는 기대가 크다 보니 자꾸 충돌도 일어나게 되고요. 어느 새 내 뜻대로 자식

쓰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 있을 때 이 도리를 알고 배워야, 지금 살아 있을 때의 그 애착과 모든 걸 다 몰락 버리고서, 애착을 두지 않고 욕심도 두지 않고 내가 한생각 전부 닳을 때 죽어서도 그것은 시공이 없는 그 대공의 한자리를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끄달리지 않고, 우리가 윤회에 말리는 것도 역겹을 거쳐서 말리지만 우리가 한생각 돌려서 이 도리를 몰락 놔 버리고 안다면 영원토록 또 말리지 않고 끄달리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산으로 돌아다닐 때 빨치산으로 붙들렸거든요. 그러니 어디 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조회를 했나 봅니다. 조회를 해서 산으로 찾아온 거죠. 그런데 보니까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참, 그 마음이 어디다가 다 할 수가 없어서, 나는 사람 같지도 않으니까 어머니가 그 자리에 펄떡 주저앉으시면서 그만 몸을 못 쓰게 돼 버렸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또 몸을 못 쓰고 뭐고 그런 건 아랑곳없이 거기에서 그냥 "어머니! 어머니의 진짜 자식이라면 요다음에 다시 내가 사람이 돼서 올 것이고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라면, 진짜 사람이 못된다면, 다시는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

음이 아파서 나는 몸을 바를 물랐습니다. 하지만 그냥 돌아섰어요.

그런 예가 있듯이, 진짜 자식이라면 금과 금이 마주 있을 때에 금은 틀이 아닌 겁니다. 금은 금이기 때문이죠. 근데 뭘 애착을 갖고 그러니까, 다시 금이 세상에 나왔으면, 그 모습을 한 번 만났으면 헤어지는 일이 틀림없을 텐데,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반복하는 이 시절에서 무엇을 내 자식이라 하고 무엇을 내 부모라고 하겠습니까. 그저 내가 뿌린 거니까 내가 해결을 해야겠으니 착이 없이 그대로 이익 하게 시봉을 하는 거지요. 나는 예전에 아주 못생긴 소나무를 봐도 "아이, 너도 나와 같이 못생겼구나. 이 위의 손을 자르면 너 모가지까지 달아나기 너하고 나하고 만난 인연도 인연이니 우리 같이 살아 보자." 하고 맨 밑바닥에 달린 그것을 소나무 가지로 꺾어서 그 잎을 씹어 가면서, 또는 그 대를 씹어 가면서 물을 마시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양심에 부끄럽진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누구를 해치려고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예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서 이 건 끊임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간다 하더라도 실과나무는 오늘 저녁까지는 실어야 한다.' 이런 게 투철하죠. 착이 없으면서 그대로 하는 겁니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앰프 설치·찬불가 반주기 설치 (550곡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4분할

사찰 하이파이 앰프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가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사찰 CCTV 설치

투원미디어 방송·음향·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기동 가빌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원백분 A/S보장 · 100% 원불보장

사찰 종합 보험 전문

사찰내외의 다양한 위험(화재 풍수해 도난 등)에 대한 대비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상해 질병의료비 보험 상담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상담
은퇴 후 노후 설계 상담

종합자산관리사 (IFP) 이진우 합창 011-766-1001